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간 열린 제23회 담양대나무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65만명이 방문했다. 주야간에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

담양군 제공

담양 대나무축제 ‘흥행’...닷새동안 65만명 몰려

죽녹원 야간 개방에 낮·밤 ‘인기’ 담빛청소년 끼 페스티벌도 성료 바가지요금 점검 등 친환경 축제로

지난 11~15일 닷새 간 열린 제23회 담양대나무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65만명이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오후 9시까지 죽녹원 야간 개방을 하는 등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죽녹원 일대에는 소망등, 반딧불 전

구와 무빙 라이트, 대형 달 포토존 및 유등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야경을 선물했으며, 죽녹원 입장권은 쿠폰으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대나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나무 땃목 등 다채로운 대나무 관련 체험과 이벤트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곳곳에서 펼쳐진 ‘운수대통 대박 터트리기’, 유키즈챌린지와 같은 게임과 이벤트는 축제에 흥미를 더했다.

또 그동안 군민의날 행사(5월3일)와

함께 진행하던 축제 일정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분리 개최해 5월 초 농번기 동안 축제에 함께하지 못한 군민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축제 행사장 주 무대에서 ‘제2회 담빛청소년 끼 페스티벌’도 개최됐다.

담빛청소년 끼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표현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통한 청소년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청소년 경연 대회다.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2개 팀이 국악, 댄스, 노래, 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경연을 펼쳤다. 지난해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만큼 더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군은 축제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점검에 나섰으며, 지역 상인들도 함께해 합리적인 가격에 특산물과 다양한 음식을 판매,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도 거듭났다. 축제에 처음 시도한 다회용

기 사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에도 많은 관광객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 먹거리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 축제가 군민과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전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난 14일 죽녹원 추성창의기념관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구·곡·순·담 어르신 100세 잔치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꿈’ 이야기 책자로 퍼내 전달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이 함께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주최의 가정의 달 화합행사가 4개 지역 어르신들의 성원 속 마무리됐다.

16일 올해 회장군을 맡은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죽녹원 추성창의기념관 일원에서 ‘오래된 나의 꿈, 꿈꾸는 화합잔치’를 주제로 제13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개최됐다.

협의회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인 100세 잔치는 지금까지 주로 4개 군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 혼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행사 주제를 특색있게 각색해 어르신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담양군은 지난 3개월 동안 4개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꿈 이야기를 채록했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책자로 엮어 당일 꽃다발과 함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손에 전달했다. 이날 함께 상영된 4개 군 대표 어르신들의 꿈 이야기 영상 또한 훈훈함과 큰 감동을 자아냈다.

식전·식후 행사로 시니어 패션쇼, 풍물패 공연, 줄타기 공연, 국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2부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부대행사로는 4개 군 어르신과 가족 사진전, 특산물 판매·홍보부스 등이 운영돼 행사에 볼거리를 더했다.

담양군에 거주하는 송창근 어르신은 “인간 수명을 백세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하루도 수많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모두가 주인공이 돼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대나무 인연’... 중국 쓰촨성 의빈시 대표단 담양군 방문

담양대나무축제 성공 기원 상호발전 위한 교류 지속

중국 쓰촨성 의빈시 대표단 6명이 지난 11일 제23회 대나무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담양군을 방문했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과 의빈시는 지난 2016년부터 담양군과 오랜 우정을 쌓아왔으며, 지난해 9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의빈시 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제23회 대나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했다. 또 담양군의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을 방문하고 이병노 담양군수와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면적 1만3283㏊에 인구 46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의빈시는 중국 최대의 죽림인 죽남죽해(蜀南竹海)가 자리 잡고 있



중국 쓰촨성 의빈시 대표단 6명이 지난 11일 제23회 대나무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담양군을 방문,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며, 대나무 관광자원, 공예 등 관련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담양군은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관광,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2016년 의빈시와

우호 도시 협약 이후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이번 의빈시의 담양군 방문이 양 도시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문화재단 ‘별스런동아리-시장편’ 참여 동아리 모집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지역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별스런동아리-시장편’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별스런동아리-시장편’은 담양 읍·면 단위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다양한 시장 거리 버스킹(공연) 및 체험을 통해 주민·외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

술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동아리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담양군 거주 및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로, 회원수 4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창평임시시장, 담양시장을 중심으로 월 2회(예정) 총 10회, 추진 예정이며

매년 다양한 주제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접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SNS 카드뉴스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생활문화팀(070-4140-5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통시장의 활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